

백제문양을 이용한 현대 소반 Design 연구^{*1}

-뒤꽂이를 중심으로-

라수연^{*2} · 김윤희^{*2} · 김건수^{*3†}

A Study of Baek-je Relic with Modern So-ban Design^{*1}

- Focused on Gold Chignon Ornaments -

Sooyoun Ra^{*2} · Yunhee Kim^{*2} · Gunsoo Kim^{*3†}

ABSTRACT

The house method of today is the house form which is composed inside the space where it is unified in social change. Also the life method from left was exchanged with stand-up meal and it became simplification and also the form of So-ban changed in the life method which is controlled.

If the ship construction trillion So-ban was the furniture which is used with putting first and today the So-ban with variation of form or the material changed with entirely different role.

The So-ban of today was used in the pattern element which is form freely to appear, dual anger there is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fact that it is turning out with the So-ban which expresses a geometric pattern with the present-day sense.

Today of the So-ban it will pattern it will rightly use Beak-je, the feature person who is the possibility this pattern showing It is soft with the sharp, soft beauty of curved line and rectilinear which is refined, omission and emphasizing which are bold today It applied in So-ban design.

Keywords: Gold chignon ornaments, culture, so-ban, baek-je relic.

1. 서론

1-1 연구목적

조선시대 목공예의 양식은 소박하고 담백하다. 깨끗하고 꾸밈없는 의장, 직선적인 구성미, 성실한 구조, 부드러운 선과 강인한 형태의 강건함은 선인들의 끈은 성격과 깨끗한 생활, 소박함과 더불어 뛰어난 조형 감각을 잘 반영시켜준 것이다.

이 중 소반은 음식을 얹어 운반을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생활과 어울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면서 크게 발전해 왔다. 소반은 우리 민족이 오랜

*1 논문접수: 2007. 05. 01. 본 논문은 공주대학교 스타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 진행됨.

*2 석사과정,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리빙디자인센터 연구원), Dept.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 graduate school, Chungnam, Korea, 314-712.

*3 교수, 국립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가구디자인전공, Major in Furniture Design, Division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314-712.

† Corresponding author: Gunsoo Kim (skimings@hanofos.com).

세월을 지나는 동안 형성되어진 주거형태와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예품중의 하나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지속적으로 사용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즉 소반은 당시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예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소반의 양식 변화를 연구·분석하여 전통 소반의 특징과 미의식을 기초로 현대 생활방식에 적합한 소반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소반은 온돌이라는 난방구조에서 좌식생활을 하는 한민족만의 독특한 양식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현대의 생활공간과 주택구조가 변화되어감에 따라 소반의 기능과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소반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 소반의 특성과 현대 소반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과 선행논문 등의 기타 자료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소반의 특징 및 유형을 알아보고, 현대 소반의 양식에 있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반과 목공예 작품으로서의 소반을 기본 문서 자료와 함께 사진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소반의 특성

소반¹⁾은 실용적으로 고안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너비가 50cm내외로 물건을 받치고 이동하는데 적합하도록 보통 성인 어깨 넓이를 넘지 않는 크기이다. 소반의 사면에 한층 높은 전이 붙여진 것은 갖가지 음식 그릇이 밀려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또한 소반의 재목(材木)은 무게가 묵직한 유기나 도자기를 얹어 날라야 하는 기능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은행나무, 가래나무, 피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2-1 조선조 소반

소반은 선과 면이 단정하고 쾌적한 구조미가 바탕이 되는 가구이며, 운반기능을 위하여 기물을 놓은 천판이 밖으로 나와 별도의 손잡이 없이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그 쓰임에 맞게 원형, 사각형, 다각형, 연엽형²⁾으로 제작되었다. 무게를 받치는 다리는 목재의 연결부분을 짜임으로 튼튼하게 짜 맞추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유려함을 가하기 위해 운각을 끼웠다. 다리는 호족, 구족, 마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죽절³⁾이나 초형의 풍혈⁴⁾은 달라 장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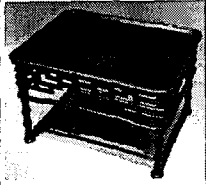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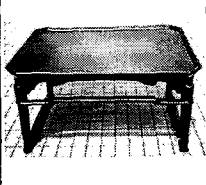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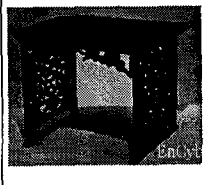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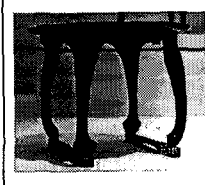

1) A small dining table.

2) Leaf of yearly flower.

3) A joint of a bamboo.

4) Goes back in tree vessel picking dignity industrial product edge and the shape carves small.

<Table 1> The atheroma of the So-ban

만든 지방에 따른 분류				
통영반	나주반	해주반	충주반	안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도 통영에서 만든 소반 - 자개상 유명 - 행자목, 피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나주에서 만든 소반 - 간결함과 소박함으로 나무의 목리 살린 것이 특징 -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 투명한 생뚝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도 해주에서 만든 소반 - 다리는 판각에 만자문, 양초문, 수복자문으로 투조 - 화려함과 장식성 -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을 주로 사용 - 생뚝칠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도 충주지방에서 만든 소반 - 각이 선 다리가 밖으로 벌어지면서 내려오다가 가늘게 안으로 오므라든 형의 소반 - 별장식 없이 단조로우며 나뭇결을 잘 살린 것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도 안주에서 만든 소반 - 다리 : 굵고 원통형이며 아무런 조각이 없고 끝부분에만 나선형의 장식 - 은행나무, 느티나무, 가래나무 사용

소반 다리의 모양에 따른 분류			
개다리소반	삼족반	외다리소반	호족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리를 개의 다리처럼 구부정하게 만든 원형이나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막치 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이 셋 달린 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리가 한 개로 만들어진 소반 - 한 개의 다리로 반의중심을 받치고 있으며, 십자모양의 받침대로 상하 두 곳을 이루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리 모양이 범의 다리처럼 휘우듬하게 굽고 장식을 한 소반 - 왕의 수라상이나 궁중·상류 가정의 제례 - 행자목, 괴목 등
마족반	은족반(隱足盤)	엄족반(掩足盤)	죽절반(竹節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반의 다리를 말의 다리처럼 조각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리 대신 편평한 받침을 붙인 둥근 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그릇을 나르는 데 쓰는 발이 짧은 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반다리를 대나무 모양으로 조각하여 만든 소반

조선시대 소반에 사용된 문양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조선시대부터 형성된 원시적인 장식문양과 중국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형성된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반의 평균 비례는 다각형 1:1.8, 원형 1:1.6, 직사각형 1:1.6:1.2의 비례로 1:1.618의 황금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한다. 소반의 높이는 시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천판의 두께가 두꺼워졌으며 변죽도 높아졌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소반이 천판에 비해 높이가 낮아졌는데 이것은 전통적 권위의식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거추장스럽고 두꺼운 방식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히 소반의 높이가 그 기능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낮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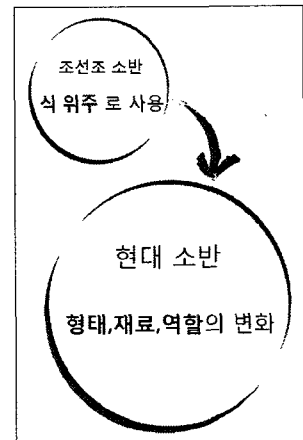
2-2 현대 소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것을 만들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서구화된 구조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립되면서 소반의 양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주거방식은 과거의 안방, 사랑채, 행랑채, 부엌이 떨어져 구분되어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의 통일된 공간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서구화된 주거 형태가 되었고 생활방식도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바뀌었다. 현대의 전반적인 의·식·주의 서구화 경향이 소반의 양식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의 가구는 내면적인 면을 충실히 하려 불필요한 선과 장식은 배제하고 간결한 선과 정리된 면 분할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형태에 따라 용도에 구분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가구의 대량생산이 용이하며 재료의 낭비가 없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 서구화된 주거형태로 생활에 맞추어 기능을 위주로 한 직선의미를 추구, 단순한 면 처리, 인공적인 질감처리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형태의 변형된 장식은 대량생산으로 인한 전체적인 소반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단순해 보일 수 있는 형태를 보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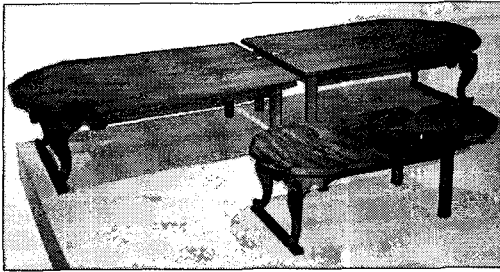
현대의 소반의 높이와 천판⁵⁾ 평균비례를 보면 다각형 1:2.3, 원형 1:2.1, 직사각형 1:2.6:1.9, 정사각형 1:2.1의 비례를 보인다. 현대소반은 축소된 주거공간과 생활방식에 맞게 다리는 전체적으로 낮아지며 풍혈도 대부분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소반에 사용된 문양은 시대적 영향과 사회적 배경에 의하여 장식되어져 왔으며 유형의 다양화를 이루면서 차츰 장식적인 기능이 부각되었다. 표현기법의 발달과 기능적 용도에 따라 문양의 형태가 변형 되거나 단순화되었다. 재료에 의한 기법과 대중의 미의식에 대한 관점이 사실적이고 주술적인 문양을 선호하던 경향에서 현대의 가구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양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문양의 요소나 형이 자유롭게 나타나며, 전통문양을 필요에 따라 약간의 변화와 함께 발전시켜온 소반과 기하학적인 무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소반으로 이원화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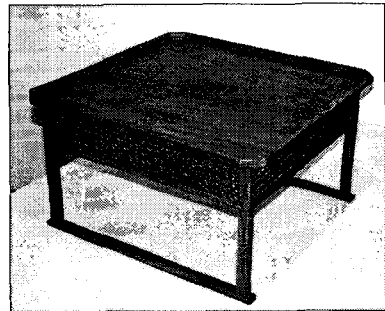


<Fig. 2> A change of the So-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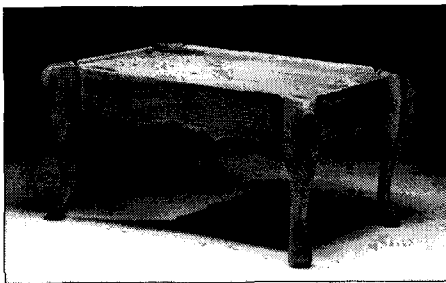
5) Desk, in box or wardrobe picking dignity up surface or the ceiling unit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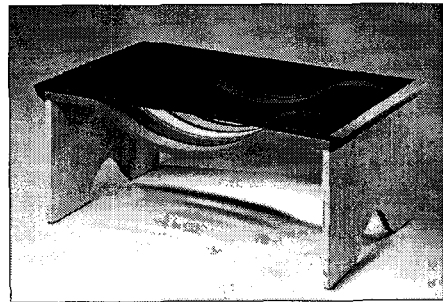
<Fig. 3> A modern so-ban(Park, Hyungchul).



<Fig. 4> A modern so-ban(Park, Hyung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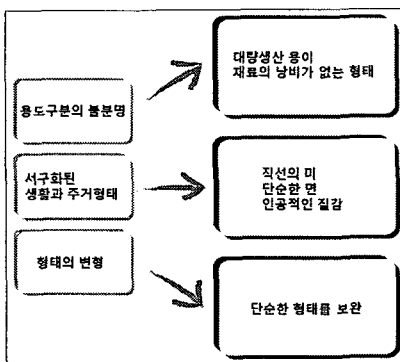


<Fig. 5> A modern so-ban(Kim, gunsoo).



<Fig. 6> A modern so-ban(Kim, gunsoo).

3. 현대소반의 역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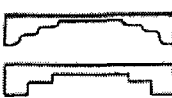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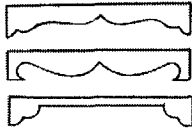


<Fig. 7> A change of the So-ban.

한국의 전통가구 시장을 살펴보면 과거의 전통기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쪽과 제작기법이나 재료, 문양, 패턴 등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디자인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두 가지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편리성과 심미성, 청결성, 합목적성의 성격이 강한 후자의 경우를 선호한다고 한다. 우리 전통가구는 재료나 기법 등이 섬세하여 우수한 구조와 장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의식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이처럼 우수한 한국의 전통가구를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현대에 이르러 변화된 생활과는 많은 기능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대 생활에 옮겨놓을 경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능성만을 가지고 비교해볼 경우 다기능을 가진 현대가구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또한 디자인의 경우 일률적인 색채와 장식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형의 다양함과 화려한 색상, 다양한 질감 등을 현대 가구에 비해 감각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조선시대 소반의 형태미와 현대적인 기능성을 융화해야 할 것이다.

<Table 2> A pattern of the So-ban

전통소반에 나타난 문양	현대소반에 나타난 문양
<p>여의두문 </p>	<p>갈상문 </p>
<p>운문 </p>	<p>안상문 </p>
<p>기하문 </p>	<p>운문 </p>
<p>양초문 </p>	<p>당초문 </p>

4. 디자인 연구

4-1 디자인 배경

조선시대 소반과 백제 문화는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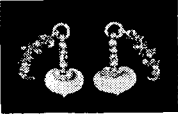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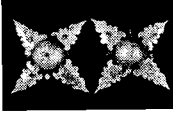




간결한 선과 면을 사용한 조선시대 소반은 간략한 전통적 문양을 넣어 상징성을 띄었고 백제의 문양은 단순히 사물만을 표현한 것에서 시작되어 저마다 상징적 의미를 유물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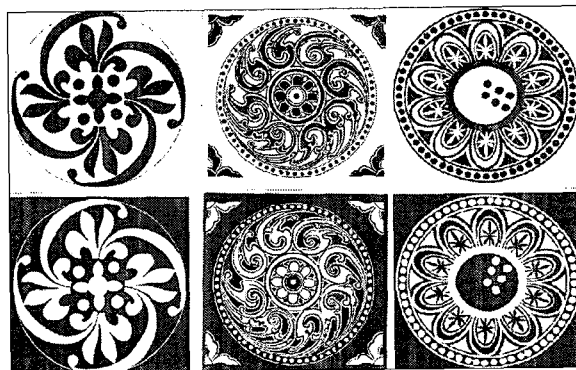
백제의 예술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으나 완만하고 부드러우며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시기의 예술품은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전축왕릉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천장의 아치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계획하여 제작한 7가지 종류의 벽돌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이 무덤건축은 깔끔하고 세련되었으며 우아하고 곡선적인 아름다움을 썩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안에 놓여있던 108종 2,906점의 각종 유물에 표현된 탁월한 기법과 뛰어난 아름다움은 당대 문화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며 조각이나 기타 작품들도 놀라운 수준이다.⁶⁾

백제의 문양은 백제미술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조형적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백제문양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각 문양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물의 용도나 재질 등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그 문양이 또 어떤 문양과 함께 묘사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문양의 일반적인 특징인 동시에 백제문양의 특징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무령왕릉 금속공예 출토품들은 예리하고 정제된 감각 또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백제문양은 문양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인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유연한 곡선미와 정제된 직선미, 과감한 생략과 강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Gongju national museum website (<http://gongju.museum.go.kr>).

<Table 3> A relic of Baek-je

왕의 유물		왕비의 유물	
	관장식 : 인동 당초문, 화염문 장식을 투조		관장식 : 왕은 금판에 인동당초문과 화염문 장식을 투조, 왕의 관식과 달리 문양이 좌우대칭이며 영락을 달지 않았음
	귀걸이 : 심엽형 장식		귀걸이 : 영락을 붙인 사슬모양 연결 금구에 탄환 모양의 끝장식을 매달음
	뒤꽂이 : 날개를 펴고 나는 새의 모습, 몸체 윗부분에는 두개의 화문(花文)을 두드려 내고 아래쪽은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새김		금제 사엽형 장식 : 꽃잎의 형태 4단의 인동당초문
	허리띠 장식 : 띠고리는 버섯모양을 띠며 띠 연결부에 7엽장식과 하트형 장식이 투조, 두꺼비무늬를 투조 장방형 은판에 백호, 주작도를 끌로 새김, 두꺼비 무늬는 달의 상징, 백호와 주작의 표현은 사신도의 일부분		금자 있는 팔찌 : 팔찌의 안쪽에 왕바를 위하여 230주이를 들어 팔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음, 팔찌의 바깥 면에는 머리를 뒤쪽으로 돌리고 발이 3개인 두 마리의 용이 표현
	발받침 : 표면에 검은 칠을 두껍게 한 후, 6각형의 거북등 무늬, 금꽃을 장식		발받침 : 전면에 붉은 칠, 가장자리를 금박으로 테두리, 검은색으로 연꽃·구름무늬 표현, 칠막대는 대나무를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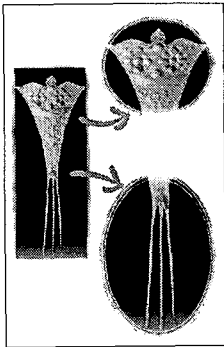


<Fig. 8> the pattern of Baek-je.

4-2 디자인 Motive

디자인 모티브를 뒤꽃이로 하였다. 뒤꽃이는 몸체와 꽃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날개를 펴고 나는 새의 모습을 닮았고 몸체 윗부분에는 두 개의 화문을 두드려 내고 아래쪽은 인동당초문을 새겨있다.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역삼각형 모양이며, 밑은 세 가닥의 핀 모양을 이루고 있어 머리에 꽃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삼각형의 윗부분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3개의 긴 꼬리처럼 되어 전체 모습이 날고 있는 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왕의 머리 부분에서 발견되었고, 끝이 3개로 갈라진 점으로 보아 의례 때 쓰인 머리 장식품으로 보인다. 장식으로 머리를 더욱 화려하게 꾸며주는 장식적인 용도인 뒤꽃이의 선을 이용하여 소반을 디자인하였다.

소반의 재료는 MDF와 두께 1mm 정도의 무늬목을 이용한다. 원목의 나무는 고갈 현상과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늬목으로 제작한다. 목리문을 살린 투명 도장을 두껍게 하여 원목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튼튼한 소반으로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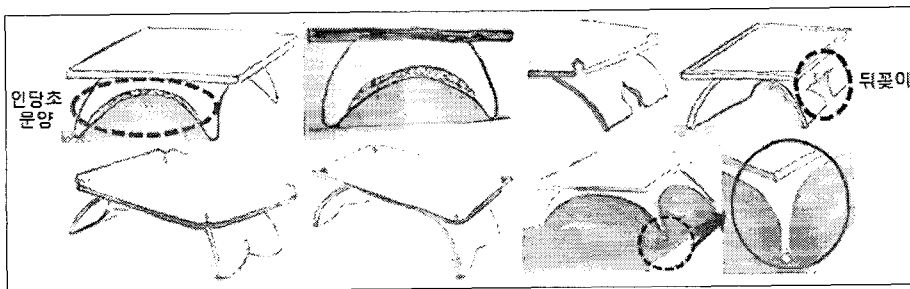
<Fig. 9> Gold chignon Ornaments.



<Fig. 10> A honeysuckle pat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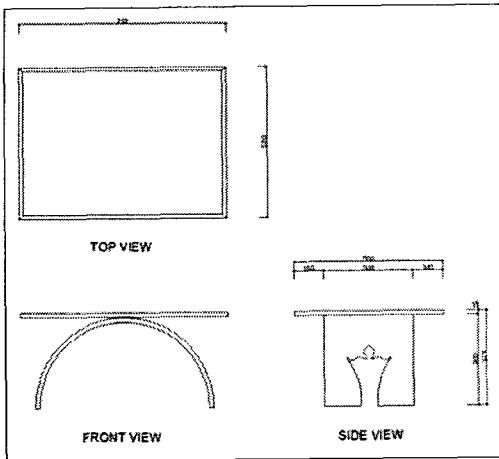
5. 디자인 제시

5-1 Idea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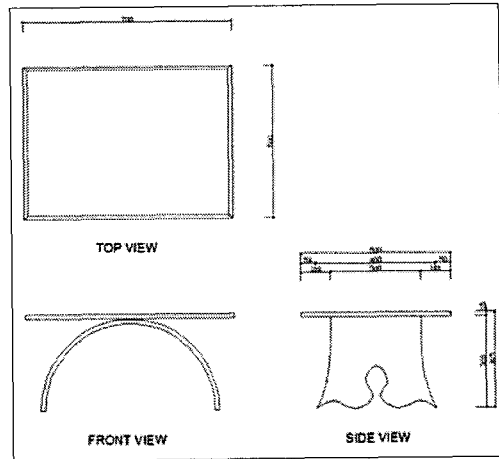


<Fig. 11> Idea sketch.

5-2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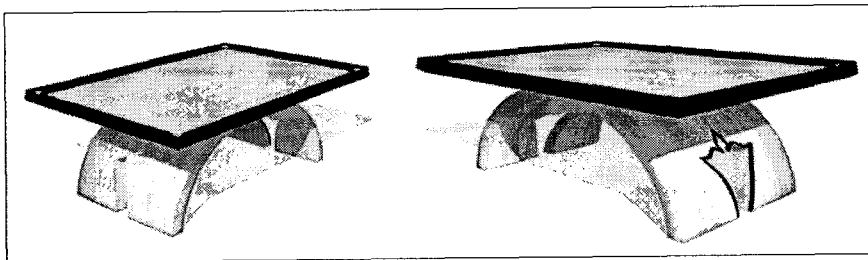


<Fig. 12> Drawin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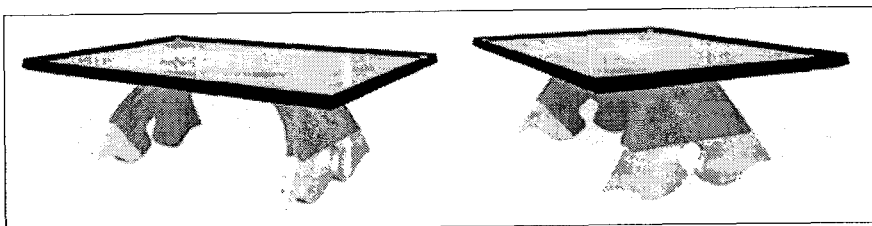


<Fig. 13> Drawing 2.

5-3 Rend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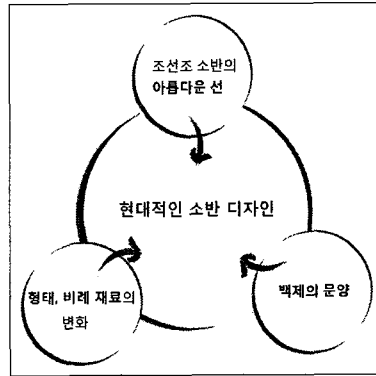


<Fig. 14> Design 1.



<Fig. 15> Design 2.

6. 결 론



<Fig. 13> Design concept.

소반은 안방가구와 사랑방 가구 등을 오가던 가구로 순간순간 생활의 멋을 느끼게 해준 소품 가구였다. 생활의 변화로 인해 서양식으로 가구들이 변화하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반은 다른 가구에 비해 발달이 미비 할뿐 아니라 기법과 재료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며 우리의 한국 고유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현재 가구에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의 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을 살린 조선시대 소반을 이용하여 형태와 비례의 변화, 재료의 변화로 조형성과 실용성을 갖춘 현대 소반을 유연한 곡선미와 정제된 직선미, 과감한 생략과 강조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백제 문양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소반의 선을 살려 현대적인 소반으로 디자인을 하였다. 소반이 기능적이고 조형미를 가진 하나의 작품으로 생활공간에 삶의 여유와 유희함을 주고자 한다.

7. 참고문헌

- 아사카와 다쿠미, 1996, 조선조 소반 · 조선도자명고, 학교재
- 나선화, 1994, 소반, 대원사
- 상창복, 朝鮮 小盤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988년도 경일대학교 학술 연구 논문
- 김삼대자, 1994, 전통목가구, 대원사
- 이종석, 1986,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 한국공예기술, 200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백제 미술의 대외교섭, 1998, 도서출판 예경
- 백제의 역사, 1995, 충청남도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충청남도
- 백제의 조각과 미술, 1992, 공주대학교 박물관
- 한국미술사, 1980, 금원용